



산업안전보건 시장 ·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

연구책임자 / 정재희
연구기간 / 2008. 11-2009. 04
등록번호 / 보건분야-연구자료 연구원 2009 - 27 - 504

본 연구는 현재의 산업안전보건 시장 · 산업에 대한 규모와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 · 조사하고 활성화를 위한 대책 연구를 통해 정부의 산재예방 정책 실행과 산재감소 목표 달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산업안전보건 시장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교육, 컨설팅, 보호구 및 방호장치, 검사, 보건서비스의 시장 규모를 파악하였다.

전화 조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 교육기관 47개 사를 대상으로 한 시장규모 조사 결과에 근거한 교육기관 전체 종사자 수는 287명이고 1인당 매출액은 1억 원, 전체 매출액 규모는 약 287억 원 규모로 추산되었다.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전체 종사자 수는 1,210명이고 매출액 규모는 약 7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공정안전관리 컨설팅 분야 시장규모는,

전체 종사자 수는 90명, 매출액 규모는 95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국내 산업안전보건컨설팅 시장 규모를 종합하면 종사자 수는 약 4,800여명, 매출액 규모는 약 2,280억 원 규모로 추산되었다.

보호구의 시장규모는 약 2,681억 원 정도, 방호장치의 시장규모는 약 2,281.44 억 원 정도로 추산되었으며, 따라서 위의 각 품목에 대한 총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규모를 약 4,962억 원 규모로 추산하였다.

산업보건서비스의 시장규모는 작업환경 측정 시장의 경우 측정기관이 현재 152개이고 년 2회의 측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장당 1회 측정비용이 평균 60 만원 정도로 파악되어 '05년도의 규모를 보면, 58,167개 사업장에 대해 약 349억 원으로 파악하였다.

보건관리대행 시장은 약 270억 정도로 추정되었고, 특수건강진단 시장의 경우 126개

기관이 연간 약 60 내지 65 만 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건당 평균 약 4만 5천원의 검진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근거로 산출하면 270-290억 정도로 추정되었다.

산업안전보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 교육, 컨설팅, 보호구 및 방호장치, 검사, 보건서비스의 개선사항을 파악하였다. 교육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여야 하며 그 규모가 1단계 185억 원일 경우 약 185명, 2단계 620억 원일 경우 약 62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컨설팅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산업안전보건컨설팅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컨설팅기관 및 시장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었다.

보건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이 산업보건서비스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로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여는 작업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조직 구성,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 사회적 기업 창업 지원 방안 마련, 사회적 기업의 인증과 경영자문 시행 등과 같은 정책들이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산업안전보건시장의 활성화 방안이 연도별 계획대로 이루어질 경우, 2014년까지 총 5조 4천 억 원('07년 대비)의 경제적 손실액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재해자수는 89,106명('07년 기준)에서 2014년 72,655명으로 16,000여명(18%)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

제공 | 산업안전보건연구원